

#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인지도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

## The Effect of Awareness of Geotourism Destination on Revisit : Based on Tourists' Evalu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임연우\* · 오지은\*\*†

Lim, Yeon-woo · Oh, Ji-eu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wareness of geotourism destination on revisit based on tourists' evalu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people who have visit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263 respondents answered. 256 copies of questionnaire among them were effective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0.0.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discovered: first, the awareness of Hallasan Mountain, Cheonjiyeon Waterfalls, Supjicoji Bay, Yongduam Rock, Oedolgae Rock, Hyeopjae Beach Ridge had an influence on revisit; second, the awareness of Jungmun Daepo Coast, Dodoobong, Seonheul Gotjawal, Suweolbong, Seongsan Ilchulbong Tuff Cone, U Island, Samyang Beach, Sanbongsan Mountain, Manjanggul lava tube, Guneun Orum, Yongmeori Tuff Ring, Biyangdo Island, Seogwipo Formation, Jeongbang Waterfalls had not an influence on revisit.

**key words** : Geotourism, Destination Awareness, Revisit

\*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e-mail: tourlims@korea.com

\*\*† 한세대학교 국제관광학과 교수(교신저자)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ourism, Hansei University. e-mail: jeoh@hansei.ac.kr

## I. 서론

20세기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력의 확대와 성장으로 경제적 부와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의 패러다임 하에 관광부문에서는 경제적 여유와 여가시간을 바탕으로 대량관광과 대중관광이 일반화 되었고 마침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관광과 대안관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임관혁,김장하 2011), 기존 대중관광에서 나타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생태관광, 자연관광, 책임 있는 관광, 연성관광, 녹색관광, 모험관광 등 새로운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대안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부 생태관광이 개발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미미한 수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 문제가 된 사례(김범훈, 2013a)도 있으나, 생태관광에 대한 비판적 평가 대신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적극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Jeju Island Global Geopark)으로 선정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지오투어리즘이 주목받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다양하고도 우수한 지형·지질 자원과 관광을 결합시킨 개념으로(전영권, 2005)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관광형태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리학, 지질학, 관광학 등의 학계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김범훈, 2013b). 해외에서는 지형과 지질 등의 비생물적인 자원을 생태자원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들을 다른 생태계 요소와 같이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새로운 관광마케팅 분야로 외화 획득과 환경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박미영, 2006).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전문성과 대안관광의 교육적 측면(전주형,임연우, 2015)으로 인하여 지리학과 지질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연구대상으로는 산악지형, 화산지형, 해안지형, 카르스트지형 등이 있으며, 연구주제는 자원개발, 보존관리, 교육적 인프라, 지오투어리스트, 주민참여 및 홍보 마케팅 등이 연구되어지고 있다(김범훈, 2013b). 사회과학적 측면의 연구로는 지역과 지오투어리즘을 연계하는 연구(박미영, 2006; 2011; 정필모·서종철·전영권·신영규, 2010; 전영권, 2005; 안건상, 2013), 지질유산 교육에 대한 연구(임근욱, 2014), 정책에 대한 연구(박민영·박경, 2012)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오투어리즘에 관하여 국내 학계에서는 생태관광 등 다른 대안관광에 비교하여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활용사례도 제주도를 제외하면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방향도 지리지질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관광지와 관광객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들 중에는 지형지질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과 적용을 위한 자연과학적 접근이 많으며,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다루어진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연구와 지오투어리즘 목적지에서의 관광행동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의 인지도가 제주도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결과물을 통해 지오투어리즘과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예측하고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지오투어리즘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은 지리학과 지질학의 접두어 'geo'와 'tourism'이 결합된 용어이며, 1996년 전문저널 '*Environmental Interpretation*'에 발표되면서 빛을 보았다(Hose, 1995). 당시 지오투어리즘은 의미 있는 지형지질 자원이 있는 지역에서 비전문가인 탐방객이 지역의 지형지질의 학문적인 의미와 지구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자료 등을 제공되는 형태의 관광으로 시작하였다(Hose, 1995). 최근엔 지형지질 자원과 자연경관이 포함된 자연관광의 형태로 탐방객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지형지질 자원이 있는 명소의 관광을 장려하고, 지형지질의 다양성을 보존하며, 감상과 학습을 통해 지구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Newsome & Dowling, 2010). 그리고 생태관광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관광에서 출발하여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의 본질을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관광을 의미하고(김정욱, 2013),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며(전주형·임연우, 2015), 이 개념에 지형지질과 같은 비생물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박민영·박경, 2012).

우리나라는 지오투어리즘을 '지질관광'으로 번역하고 있으며(정강환, 2000) 제주도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되면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오투어리즘은 지리학과 지질학 분야에서 대상지역의 지형을 산지지형, 하천지형, 화산지형, 해안지형, 카르스트지형 등으로 구분하고, 지질을 특수지질과

일반지질로 구분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김범훈, 2013b)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결론은 교육적 측면의 학습장 설치와 자원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미영, 2006; 전영권, 2005; 정필모 외, 2010).

## 2. 제주도의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대상지역 제주도는 동서로 약 73km, 남북으로 31km인 타원형 모양의 화산섬이다.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섬 중심부에 높이 1,950m의 한라산이 있으며, 오름(기생화산), 용암동굴 등 다양한 화산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2015).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유산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개발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와 관광객들이 유입한 외래문화 간 충돌로 인하여 제주의 정체성 또한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주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관광에서의 관광객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요구되면서, 제주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구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오정준, 2003). 여기에 맞추어 화산지형을 이용한 지오투어리즘이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범훈, 2013a).

다음 <그림 1>은 제주도의 대표적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 1) 제주도세계지질공원의 지오투어리즘 관광지(<http://geopark.jeju.go.kr>)

① 한라산은 높이 1,950m로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제 3기 말 ~ 제 4기 초에 분출한 휴화산이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줄기는 제주도 중앙에서 동서로 뻗는다. 남쪽은 경사가 심한 반면 북쪽은 완만하고, 동서쪽은 비교적 높으면서도 평탄하다. ② 선혈 꽃자왈은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 요철 지형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제주도만의 독특한 지형이다. 꽃자왈은 나무·덩굴식물·암석 등이 뒤섞여 수풀처럼 어수선하게 된 곳을 일컫는 제주도 방언이다. ③ 만장굴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세계 최장 길이의 용암동굴이다. 총연장 13,422m에 달하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250만 년 전 제주도가 폭발할 때 한라산 분화구에서 흘러내린 용암이 바다로 나아가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 ④ 성산일출봉은 높이 182m. 제주특별자치도 동쪽에 돌출한 성산반도 끝머리에 있다. 중기 홍적세 때 분출된 화산인 성산봉은 커다란 사발모양의 평평한 분화구가 섬 전체에 걸쳐 있다. 삼면이 해식에 이루어지며, 분화구 위는 99개의 바위 봉우리가 빙 둘러 서 있다. 그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 하여 성산이라 하며, 해돋이가 유명하여 일출봉이라고 한다. ⑤ 우도는 종달리 해안가에서 바라보면 마치 소 한 마리가 누워 있는 형상을 한 섬이 보인다. 종달리에서 약 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 속의 섬 우도다. 매년 3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섬이지만 150여 년 전만 해도 무인도였다. ⑥ 서귀포층은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서쪽 '새섬' 앞 해안가에 패류화석을 많이 포함한 지층을 '서귀포층'이라 명명한데서부터 유래되었다. 이 층은 30여 m 높기로 약 1km 지역에 걸쳐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1968년 천연기념물 제195호로 지정되었다. ⑦ 천지연폭포는 길이 22m, 너비 12m, 못의 깊이 20m. 조면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기암 절벽에서 세찬 옥수가 떨어지는 경승지이다. 폭포 일대는 뛰어난 계곡미로도 제주에서 손꼽히는 곳인데, 이 계곡에는 아열대성·난대성의 각종 상록수와 양치식물 등이 밀생하는 울창한 숲을 이룬다. ⑧ 주상절리는 마그마가 화구로부터 흘러나와 급격히 식을 때에는 부피가 수축하여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게 되면 굵은 틈이 나타난다. 이것이 절리인데, 주상절리는 단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나 삼각형의 긴 기둥 모양을 이루는 절리를 말한다. 주로 화산 지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암인 현무암에서 주상 절리가 많이 나타난다. ⑨ 용머리해안은 약 8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용이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응회암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 바닷물이 옆으로 잘랑대는 바위 위를 걸으면서 층층이 색을 달리하고 있는 바위의 모습과 그 사이사이 파도에 의해 파여진 멋진 모습이 아름답다. 해안을 한 바퀴 돌고 나와 산방산에 올라 내려다보면 바위는 영락없는 용의 모습이긴 한데 머리와 등 부분 곳곳이 잘려나간 듯 보인다. ⑩ 산방산은 높이 395m, 조면암질 안산암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중상화산이다. 다른 화산과는 달리 정상에 분화구가 없고 마치 돔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방산의 이름은 산 가운데 뚫린 자연 석굴에서 유래되었다. ⑪ 수월봉은 제주의 가장 서쪽 끝머리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제주에서 가장 넓은 들판 끝 해안가에 솟아있는 조그마한 봉우리다. 수월봉은 해안에 돌출해 있는 높이가 약 77m의 봉우리로 절벽이 예리하고 운치가 있으며 곳곳에서 솟는 용천수는 약수로 유명하다. ⑫ 비양도는 제주도 서쪽 한림 앞 바다에 섬 중심부가 분석구로 이루어진 섬이다. 분석구는 물이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데, 바다 한 가운데에 분석구로 이루어진 섬이 있다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비양도 해안을 따라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고 재미있는 지질현상이 산책로 가까이 분포해 있어서 접근과 관찰이 용이하다.

##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의 지오투어리즘 관광지(<http://www.jeutour.go.kr>)

① 외돌개는 제주 바다 가운데서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분출된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바위로, 혼자 따로 바다를 뚫고 불쑥 솟아나 있는데 높이가 20m에 달한다. ② 섭지코지의

코지는 바다로 돌출되어 나온 지형을 뜻하는 곳의 제주 방언이다. 섭지코지가 시작되는 지점인 신양해수욕장에서부터 바다로 뻗어나간 길이가 약 2km에 이르고, 해안절경을 즐기기로 제주에서 첫째로 꼽히는 장소이다. ③ 용두암은 용연(龍淵) 부근의 바닷가에 용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바위의 높이는 약 10 m나 되며, 제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승지이다. 화산용암이 바닷가에 이르러 식어 해식(海蝕)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용이 승천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④ 정방폭포는 높이 23m, 너비 8m, 깊이 5m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물이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해안폭포로 유명하다. 천제연·천지연 폭포가 남성적인 힘의 폭포라고 한다면, 정방폭포는 우아한 여성미를 느끼게 한다. ⑤ 삼양해변은 검은 모래해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삼양2동 해안에 위치한 이곳은 내륙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해안지형을 따라 검은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 삼양해변은 화산암편과 규산염광물(석영, 휘석, 사장석, 감람석)이 많은 세립질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폐사(貝沙)로 이루어진 함탁표선협재 해변과 대조를 이룬다. ⑥ 협재사구에서 사구는 연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운반되어 쌓인 언덕 지형을 말한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사구의 높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3~8m 범위이며, 김녕·평대·하도리 일대의 사구는 해안에서 6km에 이르는 내륙지역에 약 1km 폭으로 분포하고 있다. ⑦ 검은오름은 남사면이 가파르면서 등성마루가 동서로 평평하고, 북사면은 세 가닥의 등성을 이루며 북쪽으로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분화구 상단부에는 칩이 우거지고 주변에 자귀나무, 보리수나무 등이 일부 식생하고 있으며 중턱 이하 기슭에는 삼나무가 조림되어 있다. ⑧ 도두봉은 제주공항 북쪽 도두동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도내에서 관입암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해발 63.5m의 도두봉은 서쪽 기저부는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스킨리아로 이루어져 있으나, 북쪽과 서쪽 해안을 따라 용암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1〉 제주도 지오투어리즘 관광지 위치

### 3. 관광목적지 인지도와 재방문

관광학에서 관광지 또는 관광목적지는 브랜드로 볼 수 있으며(고동우, 2007), 따라서 관광목적지 인지도는 브랜드 인지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목적지 인지도는 잠재 구매자가 어떤 관광지의 재인(recognition) 또는 상기(recall)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Keller, 1993) 선호도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문의도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Keller, 1993). 따라서 잠재관광객이 그 곳을 목적지로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이태희, 2001), 모든 요소들이 장기간의 기억 속에 남아 관광객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한다(전지영·이애주, 2010).

인지도는 관광지, 음식 등 연구변수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주제연구에 많이 사용된다(강재희·강진희, 2014; 오봉희, 2009; 윤유식·곽용섭, 2005; 이충기, 2002; 허영선·조용범·우성근, 2008). 관광목적지에 대한 인지도는 방문의도(이려정, 2012), 충성도(박영제, 2012), 추천(이민재·이연주·서원석, 2012)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목적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인지하는 거리는 감소하였다(한교남·박성은, 2002).

재방문은 고객이 방문한 관광 목적지를 다시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방문객들의 의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 관계마케팅에서 강조되는 고객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중 재구매 의도의 의미와 유사하다. 기업이 고객과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구매가 중요한 전략(Fishbein & Ajzen, 1975)이듯이 관광목적지에서도 재방문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재방문은 관광학 연구에서 브랜드와 관광목적지 인식에 대한 관광행동의 매개변수(김기영·김지연, 2013; 허용덕, 2012)와 결과변수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김월호, 2014; 김혁수·김연선, 2010; 권태일·노선희, 2008; 여정경·서원석, 2014; 임연우·전주형, 2013; 전창석,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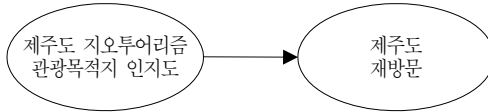
## III. 연구 설계

###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에 대한 인지도가 제주도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관광목적지 인지도는 방문의도(이려정, 2012), 충성도(박영제, 2012),

추천(이민재이연주서원석, 2012)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목적지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인지 거리는 감소하였다(한교남·박성은, 2002).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 2>와 같이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제주도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의 인지도는 제주도 재방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2> 연구모형

##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기법을 이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 5개 문항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고, 제주도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20곳에 대한 인지도 문항과 제주도 재방문에 대한 2개 문항을 각각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주도의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인지도에 대한 설문항목은 제주도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된 12개 관광지(제주도세계지질공원, 2015)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안내 사이트 추천관광지 중 지오투어리즘 관련 목적지 8개 관광지(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2015)를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재방문은 선행연구(임연우·전주형, 2013)를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 3. 표본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구글 드라이브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의 취지를 조사원이 직접 대면으로 설명할 수 없어 온라인 설문지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첨부하였다. 설문조사 기간 동안 350부의 설문을 진행하여 26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중 유효설문지 256부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대하여는 빈도분석을,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여자가 132명(51.6%), 남자가 124명(48.4%)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84명(32.8%), 20대가 73명(28.5%)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는 경기도가 126명(49.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 91명(35.5%), 자영업 36명(14.1%), 주부 36명(14.1%), 서비스업 32명(12.5%)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1~300만원이 121명(47.3%), 100~200만원이 86명(33.6%) 등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n=256)

변수	항목	빈도(명)	비율(%)	변수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132	51.6	직업	회사원	91	35.5	
	남자	124	48.4		자영업	36	14.1	
	합계	256	100		주부	36	14.1	
연령	20대	73	28.5		서비스업	32	12.5	
	30대	84	32.8		전문직	29	11.3	
	40대	53	20.7		학생	27	10.5	
	50대 이상	46	18.0		기타	5	2.0	
	합계	256	100		합계	256	100	
거주지	서울	87	34.0		월소득	100~200만원	86	33.6
	경기	126	49.2			201~300만원	121	47.3
	충청	36	14.1	301~400만원		42	16.4	
	기타	7	2.7	기타		7	2.8	
	합계	256	100	합계		256	100	

### 2.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인지도와 재방문에 대한 타당성

요인과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의 인지도의 경우 각 항목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요인분석은 생략하였으며, 재방문은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하겠다.'의 두가지 항목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요인 적재량 .880 이상, 공통성 .774 이상, 아이겐값 2.567, 분산 85.56으로 나타났다.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인지도와 재방문간의 상관관계는 분석결과 <표 2>와 같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가설검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제주도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인지도와 재방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1																				
2	.36	1																			
3	.45	.54	1																		
4	.43	.28	.42	1																	
5	.37	.23	.38	.41	1																
6	.31	.25	.40	.35	.55	1															
7	.34	.50	.55	.37	.35	.49	1														
8	.28	.40	.50	.35	.31	.38	.53	1													
9	.27	.29	.37	.43	.52	.39	.37	.53	1												
10	.04	.36	.34	.21	.07	.21	.38	.36	.16	1											
11	.13	.39	.32	.23	.06	.19	.35	.24	.22	.40	1										
12	.19	.25	.26	.17	.17	.33	.27	.21	.21	.45	.46	1									
13	.40	.24	.30	.36	.47	.49	.38	.29	.39	.12	.14	.22	1								
14	.21	.36	.29	.26	.16	.16	.28	.15	.22	.51	.47	.46	.23	1							
15	.19	.48	.44	.43	.28	.40	.51	.42	.38	.36	.50	.29	.38	.45	1						
16	.07	.36	.31	.12	.03	.18	.27	.29	.16	.70	.46	.50	.15	.52	.41	1					
17	.15	.32	.23	.11	.09	.16	.25	.31	.16	.62	.34	.52	.10	.44	.34	.74	1				
18	.27	.39	.43	.24	.25	.35	.42	.42	.25	.48	.37	.62	.28	.47	.45	.51	.57	1			
19	.16	.38	.35	.25	.16	.23	.30	.25	.15	.34	.41	.25	.17	.33	.43	.36	.40	.44	1		
20	.17	.07	.16	.25	.53	.46	.30	.26	.42	.04	.06	.17	.48	.12	.23	.01	.03	.15	.11	1	
21	.34	.30	.28	.48	.49	.46	.31	.22	.49	.14	.18	.14	.43	.27	.42	.10	.13	.19	.15	.50	1

1.주상절리, 2.외돌개, 3.만장굴, 4.섭지코지, 5.성산 일출봉, 6.용두암, 7.용머리해안, 8.정방폭포, 9.천지연폭포, 10.수월봉, 11.삼양해변, 12.서귀포층, 13.우도, 14.꽃자왈, 15.협재사구, 16.검은오름, 17.도두봉, 18.산방산, 19.비양도, 20.한라산, 21.재방문

### 3. 가설검증

'제주도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인지도는 제주도 재방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 3>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도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는 세계지질공원 제주의 목적지 '한라산'과 '천지연폭포' 두 곳을 포함하여 '섭지코지', '용두암', '외돌개', '협재사구'의 6곳이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긍정적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며, 연구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관광목적지 인지도는 '한라산(5.918)', '성산일출봉(5.594)', '우도(5.090)', '용두암(5.176)', '천지연폭포(4.910)', '섭지코지(4.410)', '주상절리(4.039)' 등이 7점 척도 기준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도도 높고 재방문에도 영향을 미치는 목적지는 '한라산', '천지연폭포', '섭지코지', '용두암'의 4곳으로 나타났다.

<표 3> 제주도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인지도와 재방문 간의 영향관계

목적지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Beta	t값	유의수준
한라산*	5.918	1.665	0.051	0.288	4.894	0.000
천지연폭포*	4.910	1.941	0.046	0.221	3.548	0.000
섭지코지	4.410	2.112	0.040	0.199	3.403	0.001
용두암	5.176	1.772	0.051	0.195	3.064	0.002
외돌개	3.254	2.200	0.040	0.163	2.673	0.008
협재사구	3.094	2.056	0.047	0.170	2.509	0.013
주상절리*	4.039	2.287	0.037	0.099	1.667	0.097
도두봉	1.934	1.577	0.070	0.127	1.646	0.101
곶자왈*	2.551	1.903	0.047	0.088	1.408	0.161
수월봉*	2.375	1.633	0.063	0.052	0.722	0.471
성산일출봉*	5.594	1.682	0.056	0.039	0.592	0.555
우도*	5.090	1.969	0.044	0.007	0.118	0.906
삼양해변	2.934	2.071	0.042	0.013	0.206	0.837
산방산*	2.480	1.972	0.051	-0.033	-0.466	0.642
만장굴*	3.598	2.297	0.041	-0.049	-0.746	0.456
검은오름	2.027	1.568	0.074	-0.099	-1.212	0.227
용머리해안*	3.910	2.176	0.043	-0.085	-1.306	0.193
비양도*	2.348	1.673	0.048	-0.096	-1.714	0.088
서귀포층*	2.918	1.997	0.048	-0.131	-1.947	0.053
정방폭포	3.777	2.170	0.043	-0.207	-3.195	0.002

주1) R<sup>2</sup>=.529, 수정된 R<sup>2</sup>=.503, R=.727, F=13.171, P= .000

주2) \*표는 세계지질공원 제주의 목적지

## V. 결론 및 시사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관광부분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시도는 관광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이 기저에 깔려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국관광객의 증가,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 지정,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등과 함께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와 같은 개발성장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물론 관광발전, 경제발전 등에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 정체성 상실, 환경파괴, 개발에

소외된 지역사회 문제 등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도되는 지속가능한 관광 중에 하나가 본 연구의 주제인 지오투어리즘이다. 지오투어리즘은 다양하고도 우수한 지형 및 지질 자원과 관광을 결합시킨 개념의 관광형태이다. 생태관광과 유사할 수 있지만 무생물을 대상으로 과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존재한다. 즉 단순한 관광형태와는 달리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교육적인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과피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효과가 있음이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형과 지질은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할 최적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연구대상 지역인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인한 독특한 지형과 지질자원을 갖추고 있어 지오투어리즘 관광지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주도의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인지도가 제주도 재방문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제주도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 중 '한라산', '천지연폭포', '섬지코지', '용두암', '외돌개', '협재사구' 등 6개의 목적지가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상절리', '도두봉', '곶자왈', '수월봉', '성산일출봉', '우도', '삼양해변', '산방산', '만장굴', '검은오름', '용머리해안', '비양도', '서귀포층', '정방폭포' 등 14개의 목적지는 제주도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주도가 자랑하는 많은 지오투어리즘 관광지는 제주도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지오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 관광과 달리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지나 새로운 관광의 경우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며, 이로 인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난다. 즉, 체험학습이라고 표현되는 교육의 형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 교육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해설사, 안내판, 예약 등의 원활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오투어리즘의 경우 지형과 지질이 주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 해설사 양성도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행사의 기획여행 상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한라산', '천지연폭포', '섬지코지', '용두암', '외돌개', '협재사구'와 같이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목적지는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어 여행사 기획여행 상품에 등장하는 목적지이다. 물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목적지도 기획여행 상품에 포함된 곳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오투어리즘이 새롭게 도입·적용되는 현실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여행사의 단체 관광객은 많은 인원이 참가함으로 목적지의 환경보호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고 관람객에게 알려야 한다. 즉, 손으로 만져야 할 것과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하여야 한다.

셋째, 접근성과 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관광의 경우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곳에 목적지가 있는 경우가 많고, 교통편, 접근성, 안전성에서 일반 관광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제주도 지오투어리즘 관광목적지도 해안, 산악 등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예약제와 셔틀버스 운행 등은 접근성 향상과 혼잡도를 줄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목적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관리자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인지도 낮은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 등에 지정되면서 제주의 자연이 세계적 유명세를 타는 계기가 되었다. 지자체는 이를 지역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과정을 통해 기존의 유명 관광목적지를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광고와 홍보의 필요성이 조사되었다. 특히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주상절리', '도두봉', '곶자왓', '수월봉', '성산일출봉', '우도', '삼양해변', '산방산', '만장굴', '검은오름', '용머리해안', '비양도', '서귀포층', '정방폭포' 등의 현재 상황과 가치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지도가 높은 '성산일출봉', '우도' 등의 목적지를 제외하고 다른 목적지들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잘 끌거나 잘 알려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일반 관광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어 유흥을 원하는 관광객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대량 관광이 불가능하여 많은 사람이 목적지에 방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오투어리즘은 친환경을 바탕으로 지리·지질에 대한 이해가 목적인 교육적 측면의 관광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 증가와 저비용항공의 발전과 함께 내국인 관광객 증가까지 관광특수를 누리고 있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있다는 신문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외부환경이 제주도 관광정책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다보니 관광목적지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 지리·지질학적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지오투어리즘 목적지 선정에 있어 유명한 곳으로만 제한하여 조사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강재희·강진희(2014). 진주 향토음식의 힐링 푸드 이미지가 인지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 29(3): 181-203.
- 고동우(2007). 관광지의인화 수준이 관광목적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1(1): 179-200.
- 권태일·노선희(2008). 동굴관광지의 방문동기·관광만족·행동의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7(6): 151-168.
- 김기영·김지연(2013). 공무원역 커피 브랜드 이미지가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바리스타과정 학생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2(2): 335-352.
- 김범훈(2013a).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과 대안적 모델로서의 지오투어리즘. 『탐라문화』, 44: 83-120.
- 김범훈(2013b). 한국에서의 지오투어리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476-493.
- 김월호(2014).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역관광정보 이용자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관한 연구-강릉 지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3(3): 411-433.
- 김정욱(2013). 생태관광의 진정성이 관광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5(3): 107~126
- 김혁수·김연선(2010). 와인 바의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만족, 충성도,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2): 433-443.
- 박미영(2006).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의 북한산 국립공원 적용사례 연구. 『응용지리』, (27): 63-85.
- 박미영(2011). 홍도 지형 자원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1): 109-121.
- 박민영·박경(2012). 거제도 해금강 지오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접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2): 175-187.
- 박영제(2012). 호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7(5): 201-218.
- 안건상(2013).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금당산의 지질학습장으로서 활용성. 『한국지구과학회지』, 34(3): 235-248.
- 여정경·서원석(2014). 한류의 문화콘텐츠 브랜드 개성이 한국관광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6(2): 23-44.
- 오봉희(2009). 서울지역 주부들의 젓갈에 대한 인지도 조사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8(2): 155-169.
- 오정준(2003).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생태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유식·곽용섭(2005). 관광일반부문: 지역주민의 장소애착심에 따른 관광지 평가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4(2): 511-525.
- 이려정(2012). 영상물은 통한 관광지 인지도와 관광지 이미지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4(4): 57-77.
- 이민재·이연주·서원석(2012). 지자체의 관광자원 브랜드 자산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499-509.
- 이충기(2002). 월드컵 메가이벤트가 한국 관광지의 인지도와 이미지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평가. 『관광학연구』, 26(1): 13-29.
- 이태희(2001). 한국관광목적지 브랜드 창출을 위한 브랜드 지수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5(3): 171-192.
- 임관혁·김장하(2011).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레저연구』, 23(3): 87-103.
- 임근욱(2014). 지질유산의 지오교육 및 지오보전 인식을 통한 지오투어리즘 발전에 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6(6): 43-59.
- 임연우·전주형(2013).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추가비용과 재구매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2): 688-695.
- 전영권(2005). 지오투어리즘을 위한 대구 앞산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6): 517-529.
- 전주형·임연우(2015). 생태관광 해설의 교육적 효과. 『관광경영연구』, 63(단일호): 215-231.
- 전지영·이애주(2010). 브랜드인지도에 따른 외식 기업 브랜드 로고의 현지화 요인별 브랜드이미지 인식 연구. 『외식경영연구』, 13(2): 33-56.
- 전창석(2013). 주제공원 서비스속성이 고객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2(3): 155-168.
- 정강환(2000). 지질관광대상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시장분석과 관광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1): 281-296.
- 정필모·서종철·전영관·신영규(2010). 지오투어리즘 (Geo-tourism) 을 위한 주왕산국립공원의 자연관찰로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17(2): 77-86.
- 제주도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2015). <http://geopark.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보 홈페이지(2015). <http://www.jejutour.go.kr>
- 한교남·박성은(2002). 역사문화관광지 방문객의 인지도 분석. (사) 한국관광학회 제 52 차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정기학술논문 발표대회. 『學術研究發表 論文集』, 525-536.
- 허영선·조용범·우성근 (2008). 부산·경남지역의 전통혼례음식에 대한 인지도 연구. 『호텔리조트연구』, 7(2): 131-145.
- 허용덕(2012). 문화관광축제의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만족, 재방문 및 추천 의도와외의 관계에서 개인특성 요인의 조절효과 분석-원주한지문화제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1(2): 165-186.
- Fishbein, M. & Ajzen, I. 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 an Reading*, MA : Addison - Wesley.
- Hose, T. A.(1995). Selling the story of Britain's Stone.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10(2): 16-17.
- Keller, K. L.(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 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7(January): 1-22.
- Newsome, D. & Dowling, R. K.(2010) *Geotourism: The Tourism of Geology and Landscape*, Oxford : Goodfellow Publishers.

논문 투고일 : 2015년 11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15년 11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1월 25일  
 3명 익명 심사필